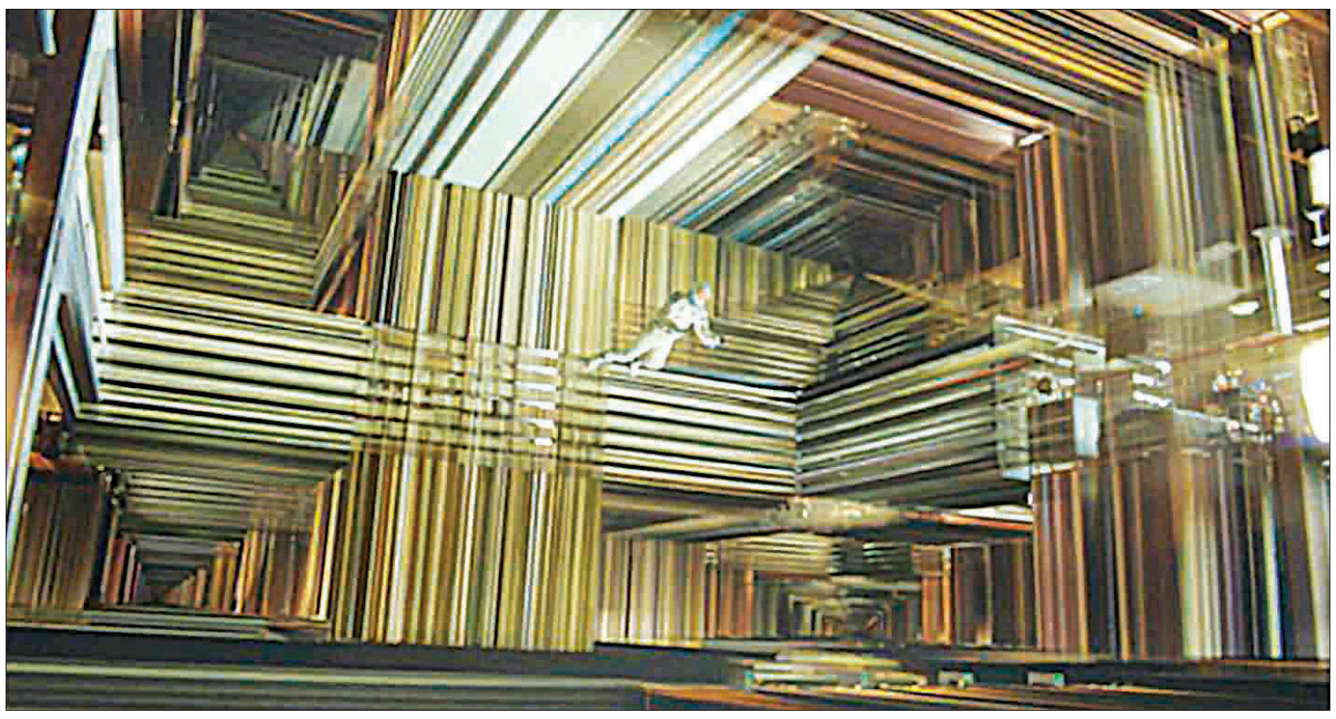
김혜신의 시네마 만다라 ❸ 〈인터스텔라〉와 諸法無我



▶ 한줄 요약
한국에서도 흥행한 〈인터스텔라〉는 단순한 SF영화를 뛰어넘는다. 노벨물리학 수상자까지 제작에 참여한 〈인터스텔라〉는 과학과 인문학, 시각예술의 집약체다. 특히 마지막 '테서랙트' 장면은 불교의 인드라망을 표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과학을 시각예술로…'인드라망' 표현



영화 〈인터스텔라〉의 테서랙트 유영 장면. 이미지의 원형은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 있다. 영화는 해당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복합적 우주 현상, 즉 과학과 제법무아적 사고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현상을 보여준다.

행성 여행서 인간 여행으로

'인터스텔라(Interstellar)'는 행성 간 우주여행과 시공간 여행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면에는 은하계 여행만큼 위태롭고도 경이로운 인간 간(間), 즉 사회적 의미로 축소할 수 없는 인연생기(因緣生氣)의 원리를 꿰뚫는 여행이 투영돼 있다. 이는 웜홀이나 블랙홀, 양자역학, 5차원적 시공간과 같은 문제들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속에 펼쳐놓은 과학영화로 애호될 측면도 다분하나, 단순한 SF 영화로 그치지 않는다.

처음부터 승산이라곤 아예 없는 우주비행에 도전하는 등장인물 쿠퍼가 긴 세월 동안 죽음의 상황들을 차례로 극복하며 절체절명의 우주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동기는 어찌 보면 단순하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한다는 인간적 희망이자 후손들을 향한 무한 애정이다. 결국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비장의 블랙홀 중력 데이터를 획득하고 돌아온다. 여기에는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의 도움이 있다. 그리고 이를 모르스 부호의 형태 등으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3차원 세계에 있는 딸 머프에게 전달하고자 애쓴다. 이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C. Nolan)이 런던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이력이 있고 철학적, 시적 소양을 지녔다는 점은, 작품이 지닌 풍요함을 말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면이다. 우선 〈인터스텔라〉에 깃든 정신을 효과적으로 환기하는 면에서, 영화에서 세 번 인용되며 여운을 남기는 딜런 토마스의 시를 짧게 인용해본다.

노인이여, 저무는 날에 소리치고 저항하시오./ 꺼져가는 빛에 항거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시오.(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브랜드 박사가 읊는 이 시에서 'Rage'는 아마 부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일종의 분심을 가지고 생의 끝까지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의지와 철학적 태도를 말할 것이다. 영화적 맥락으로 보자면, '노인'은 넓게 보아, 극심한 병충해로 인해 전 지구의 생물들이 피폐해가고 병원체가 번성하면서 산소는 결핍되어가며 미세먼지로 뒤덮여가는 위기 상황 앞에 놓인 무기력한 인간이다. 이 상황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생존할 만큼 취할 수 있는 몇 알의 옥수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후대의 자손과 인간 가족들을 위해 병들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문명과 생명의 빛을 살리려는 투지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대손손 노력을 이어가며 그 빛을 살려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라는 자력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출구가 없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실낱같은 가능성을 찾는 나사(NASA)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전 생애를 우주공간에서 떠돌게 되는 쿠퍼 또한 결국 브랜드 처럼, 위태로운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어간다.

놀란 감독에게서도 우리는 이렇듯 자신의 분야에서 미지의 영역을 확장하고 연기적 사유를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특히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러한 놀란 감독의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표현력이 범상치 않음이 입증되는데, 이는 과학적 지식이나 영화 기교만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경지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시네마가 그 탄생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잠재성을 최대로 끌어내어 과학과 인문학과 시각예술을 한 편의 작품 속에 집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보인다. 〈인셉션〉에서 〈테넷〉에 이르는 일련의 대표작에서 보듯이, 그의 작품은 매번 새롭다. 그 중에서도 169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을 가진 〈인터스텔라〉(2014)는 첫 개봉 시 한국에서 천만 이상의 관객을 모은 바 있다.

그는 여기에서 오랜 기간 쌓은 내공과 이미지 예술가이자 일종의 첨단 융복합 인문학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201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킵 손(Kip Thorne)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영화 기획이나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작품은 놀란을 구심점으로 이루어진 예술과 과학의 상호 대화와 균형 잡힌 통합적 작업을 잘 보여준 표본으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융합'이라는 말이 과학에 의해 전유되고 인문학이나 인간학은 사실상 도외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장식화 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눈여겨 참고할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유례없는 협업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인터스텔라〉이며, 이 중에서도 작품의 마지막 시퀀스는 백미 중 백미이다. 여기에서는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모든 현대과학에 대한 논의들과 인문학적 사유, 그리고 인류가 시도한 행성 간 여행(가령 보이저 1, 2 호를 통한)의 시간이 크리스탈처럼 결정화(結晶化)되어 빛난다. 이는 영화적 차원을 넘어 세계와 인간에 대한 고도의 복합적 이해이자 더할 수 없이 명징한 표현이라는 면에서, 해당 장면을 잠시 상기해보고자 한다.

SF 영화 넘어선 〈인터스텔라〉
과학 · 인문학 · 예술 한데 집약
마지막 테서랙트 장면이 '백미'
불교 '제법무아' 사상 담겨있어

5차원 시공 속 '시방삼세 제망찰해'

과학의 눈으로만 보면, 마지막 장면에 시각화된 것은 복합적인 '테서랙트'이다. 이는 킵 손이 영화가 나온 이후 직접 그 세부에 대해 밝힌 〈인터스텔라의 과학〉에 설명돼 있다. 간략히 말하면, 쿠퍼가 죽음의 블랙홀을 통과해 최단속 시간 여행을 통해 딸 머프의 방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는 영화적으로 4차원 초입방체(hypercube) 테서랙트다. 큐브(3차원으로 생각하면) 캡슐처럼 여기에 싸여 쿠퍼는 보호받고 딸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전하게 된다.

이는 킵 손에 따르면, 우주 속에 있는 초고도 문명을 가진 어떤 존재의 도움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테서랙트라는 입방체는 이를테면 그것을 운반한다 할 수 있는 '벌크 장(bulk field)'이나 웜홀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4차원 테서랙트로부터 보면, 모든 3차원의 시공간을 한눈에 찰나적으로 볼 수 있고 특정 지점으로 이동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비록 여기에서 나가서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유령처럼 존재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과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의 묘미는 과학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과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는 세계, 즉 불교적 세계관이 나란히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필 높은 서가와 책들의 미장센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 이미지의 원형은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서 온다. 이 '도서관'(우주의 상징인 대문자 'Bibliotheca')의 한 서가에서 종교적 · 문화적 · 과학적 차원이, 그리고 3차원 세계와 4차원 이상의 세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하나로 만난다.

보르헤스의 우주적 도서관은 현재의 사람들에게 불가해한 신적인 것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시공간이며, 모든 인간은 그 속을 헤매는 "불완전한 사서들"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주의 어떤 책장에 그러한 총체적인 책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미지의 신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책을 들춰보고, 그것을 읽어본 사람이 있기를 기도했다. 만일 영광과 지혜와 행운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되게 하소서. 비록 나의 자리가 지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존재하게 하소서. 내가 능멸을 당하고 죽어 무(無)로 사라져버린다 해도, 단 한 순간,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당신'의 거대한 '도서관'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해주소서."

물론 이는 불교에 한정될 수 없는 종교적 성찰이자 기도이나, 그 본질은 구원의 기독교보다는 무아와 공(空)사상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부까지 표현해보고자 한 놀란의 시도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영화는 이렇듯 말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하여 한눈에 복합적 우주 현상, 즉 과학과 제법무아적 사고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현상을 보여준다. '나는 현재의 무수한 존재들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비롯한 미래의 무수한 존재들과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혹은 '시방삼세 제망찰해'의 진리를 가시화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 그렇게 무량한 세계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세계가 서로 무한으로 관계하여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몸이 되어 있는 세계(김사업,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수업〉 中)"를 뜻한다. 시방삼세(十方三世)는 공간적, 시간적 우주(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말이며, 제망은 제석천의 보망(寶網)을 말한다. 이 망은 각각의 그물코마다 보주(寶珠)가 붙어서 각각의 코에 달린 각각의 보주는 서로 교착되고 서로를 비추면서 빛을 낸다. 말하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어져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는 현상계이다.

〈인터스텔라〉의 이미지는 이와 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시각적으로 이 장면에서 스크린 위에서 무수히 빛나는 거미줄 같은 투명한 선들은 우리에게 저 인드라망을 목도 내지 상상하게 한다. 대형화면, 특히 아이맥스 버전을 통해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는 인지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스크린 전경에 드리워져 미세하게 진동하며 말로 형용이 불가한 생기를 뿜는 이 무한한 선들로 짜인 우주적 그물, 그리고 그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한 인간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압권이다. 여기에는 과학과 불교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우주의 섭리,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하므로 저것이 발생한다'는 양자물리학적인 무아 사상과 시공간의 상대성, 가족과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유대감, 자리이타의 원리에 대한 관찰이 압축적으로 들어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어려우나 때로 삶에서 양자적 중력만큼 강한 힘을 발생시키는 가족 간이나 연인 간의 사랑의 자력(磁力), 그리고 무아의 실천 차원까지도 결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모종의 병원체가 지구를 초토화한 작품의 상황처럼 제어불능의 바이러스로 인해 문명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우리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인터스텔라〉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한 장면과 그 지혜의 빛을 복기해본다. 〈영화 · 문화평론가〉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리암
• 주 지 : 지명 (속명 : 이금복)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31번길 4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